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안진**

BK21 박사후연구원 이점숙***

박사과정 수료 김정민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Yoo, An-Jin

BK21 Post Doctor : Lee, Jum-Sug

Completion of a Doctoral Course : Kim, Jung-M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acts of adolescents' body images, attachment to parents, attachment to peers, and 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were 1449 adolescents selected from six junior-high schools. T-tes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body images,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 2) Adolescents' body images and degree of resilien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 3) Attachment to parent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but peer attachment was not significant.

▲주요어(Key Words) : 신체상(body image), 부모애착(attachment to parents), 또래애착(peer attachment), 탄력성(resilience),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1. 서론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발달과 함께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발달과업이 주어지면서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부적응적 행동이 표출되기도 하고(이춘재·곽금주, 2000; 최선남·최외선, 1999)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적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정

옥분, 1998). 그러나 적응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주는 의미도 크지만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최근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이 역기능적 상황에 처한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이경남·하연미, 2004). 이는 어떤 가치적인 부정적 상황 외에 그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수준과 실제생활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수록 주관적인 생활만족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생활만족이란 개인의 기대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정옥분, 1998). 즉, 생활만족은 본인의 실제 생활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생활과 근접하다고 판단하여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생활의 태도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주저자 : 유안진 (E-mail : eaj@snu.ac.kr)

*** 교신저자 : 이점숙 (E-mail : leejs0427@hanmail.net)

이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생활만족의 저하가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자신의 직업에서 은퇴한 퇴직자나 자식의 독립으로 인하여 공허감을 느끼는 빈둥우리 시기의 중년 여성의 경우 생활만족이 떨어진다고 한다.

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서 청소년들이 변화된 신체에 대한 자기상을 형성해 나가고 이것이 본인의 생활만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즉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정옥분, 1998). 신체적 성장이 완만하던 아동기와 달리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급격히 변화해가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아주 예민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여 신체상이 왜곡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남아보다 여아가 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brooks-Grunn, 1991; Duke-Duncam, 1991). 여아들은 대체로 자신의 체격에 대해 비판적이고 자신이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체중, 체형에 대해 덜 만족스러워한다. 또한 여아들은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남아보다 외모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Wood, Becker & Thompson, 1996). 여아들은 특히 체중에 민감한데 대부분의 여아들은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날씬해지기를 원한다(정옥분, 1998).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매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반영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신체에 대한 관심 및 신체상 왜곡은 비단 여성만의 일은 아니다. 자신의 신체보다 더 근육질이 되기를 원하는 남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에 관심을 보이는 남성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상은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이영미, 2004a; 정옥분, 1998, 정승교, 1998).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또한 역도 성립하여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못마땅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편이다(이영미, 2004b). 또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낮은 평가는 우울과 관련되는 반면(최영희, 박영애, 박인진, 신민섭, 2002), 신체상이 긍정적인 청소년의 불안 수준이 낮았다(박경애,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박경애, 2002; 이영미, 2004a, b; 장선철·송미현, 2004; 정승교, 1998)은 신체상 지각이 개인의 정체성, 자존감, 자기 가치감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적 적응, 태도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신체상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만족하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만족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의 생활만족은 그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우선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학교와 가정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상대적인 차이가 적게 나는 반면 현대사회의 폐쇄성과 고립화가 심화되면서 그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영아기 이후의 주된 애착대상인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점차 자신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단계이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Bowlby, 1982)이다. Bowlby(1982)는 어떤 연령에서도 믿을만한 타인으로부터 접근성과 반응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rmsden & Greenberg, 1991). 아동연구에 있어서 애착이 연구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후 1년간 영아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의 결과가 이후 발달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Bowlby(1981)는 내적역동성 모델을 기초로 하여 영아가 형성한 애착이 이후 대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통해 애착이 영아기 뿐 아니라 전생애 발달에 중요한 인자임을 입증하였다. 일생에 걸쳐 나타나는 애착은 질병이나 두려움과 같은 취약한 시기에 특별한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접촉하려는 행동적 성향으로부터 비롯된다. 성장함에 따라 애착인물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가 줄어들지만 전화나 편지 같은 의사소통은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애착행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secure base)로 남아 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을 때에는 애착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며 애착대상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맺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는 자율과 정체감 형성을 위해 재조직되어야 하지만 이시기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 일 수 있으며 청소년의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는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애착행동은 부모 뿐 아니라 친구에게로 확대된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실제 생활하는 시간보다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으며 이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여러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이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김경숙·박미금, 1999), 부모의 이혼과 같은 역기능적 상황에서도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은 더 잘 기능한다(김남숙, 1994; 김옥·이완정, 2001). 이러한 역기능적 상황 외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형성하고 있는 부모와의 애착은 사회성과 자아존중감(김지연, 1995), 학교

생활적응(문은식, 2003), 가정생활적응(구자은, 2000), 충동 및 비행통제(유성경·이소래, 2001)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이 객관적인 지표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적응 및 행동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만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Amato, 1993, 2000)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더 적은 대화를 나눈다. 또한 여학생은 지지와 근접성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찾으며 높은 애착의 질을 보고한 반면 남학생은 어머니에 대해 여전히 높은 애착의 질을 보였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및 근접성 추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학생에 비해 분리애 더욱 몰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김지연과 Greenberg, Siegel과 Leitch(198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초등학교 6학년층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래애착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우정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남학생은 여러 명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활동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반해 여학생은 친밀하고 심도 있는 소수와의 관계를 선호하며 이들과 주로 대화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비밀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또래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에 성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또래에 대한 애착에 성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성차를 알아보고 생활만족에 대한 애착의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생활만족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변수 중의 하나는 개인의 적응 및 대처 전략과 관련 있는 탄력성이다. Rutter(1985)와 Garvey(1980)가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적 상황 조건하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아동을 발견하여 이들의 특성을 탄력성이라고 정의(구자은, 2000에서 재인용)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탄력성은 초기에는 주로 역기능적인 상황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김승경·강문희, 2005; 이용준·박경자, 2004)가 이루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특성이다. 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된 정의는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Luthar, 1991; Luthar & schuman, 2000;

Luthar, Cicchetti, & Becker, 2002; 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2) 즉, 탄력성이란 경직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볼 때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제까지 탄력성과 생활만족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Garvey, 1996; Luthar, 1991; Luthar & schuman, 2000;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은 개인이 처한 역경에서 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이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거나 긍정적인 성취를 나타내는데 탄력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탄력성과 개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Cicchetti(1993)는 학대아동 중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더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구자은(2000)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탄력적인 청소년은 덜 공격적이고 타인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타인과 애착하는 경향이 있다(Born, Chevalier, & Humblet, 1997).

청소년이 가족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적응과 안녕에 도움을 주며(장취숙, 2001),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부적응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많이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불우하거나 위협적인 환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력성이 부적응적이지 않은 일반생활 환경에서도 개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만족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검증함과 동시에, 설명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찾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김옥·이완정, 2001; 문은식, 2003)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애착과 모애착은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높은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두 가지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 생활만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

성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별, 신체상, 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서울 및 경기지역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6개 중학교에서 1449명의 중학생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애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 1449명 중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제외한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 1227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결핵치를 제외한 총 93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4.4세였으며, 남학생이 386명(41.5%), 여학생이 545명(58.5%)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무직 16명(1.7%), 노동직 25명(2.7%), 기술직 76명(8.2%), 자영업 255명(27.4%), 사무직 288명(30.9%), 전문기술직 105명(11.3%), 관리직 80명(8.6%), 전문직 48명(5.2%)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무직418명(44.9%), 노동직 53명(5.7%), 기술직 78명(8.4%), 자영업 166명(16.6%), 사무직 114명(12.2%), 전문기술직 15명(1.1%), 관리직 10명(1.1%), 전문직 45명(4.8%)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한달 평균수입이 150만원 이하가 163명(17.5%), 150-300만원이 398명(42.8%), 300만원 이상이 252명(27.1%)이었다.

2. 연구도구

1) 신체상

청소년의 신체상을 알아보기 위해 Peterson, Shulenberg, Abramowitz, Offer와 Jarcho(1984)의 SIQYA(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IQYA는 청소년의 자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충동통제, 정서상태, 신체상, 대처능력, 정신병리, 적응능력, 친구관계, 가족관계의 총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각각의 척도는 7-17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체상 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6점 척도로 평정하며, 신체상 점수의 총점 범위는 11-66점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6$ 으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Greenbert, Burke와 Mitchell(1991)의 IPPA-R(Revised Inven-

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애착과 모애착은 각각 25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5점 척도로 부모와의 관계를 평정한다. 부모애착과 모애착 점수의 총점 범위는 각각 25-125점이다. 부모애착과 모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와 Cronbach $\alpha = .92$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또래애착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et al.(1991)의 IPPA-R 중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역시 25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5점 척도로 또래관계를 평정한다. 또래애착 점수의 총점범위는 25-125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4) 탄력성

청소년이 가진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lohen(1996)의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장 탄력적인 개인 특성을 설명하는 13개 문항과 가장 탄력적이지 않은 개인 특성을 설명하는 13개 문항,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26개의 문항에 대해 각 특성들이 얼마나 자신과 가까운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탄력성의 총점 범위는 26-130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5) 생활만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ner, Emmons, Larsen과 Griffins(1985)의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5개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며, 생활만족 점수의 총점 범위는 5-35점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04년 11, 12월 서울 경기 지역 6개 중학교의 2학년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전공자들이 각 학급의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설문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교사가 학급에서 진행사항을 감독·지시하였다. 모든 학생이 응답을 마치고 설문지를 수거하면 조사가 완료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고, 자료의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 및 생활만족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 및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남학생의 신체상 점수는 여학생의 신체상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88, p<.001$). 이는 성별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수준이 다르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좀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남학생의 생활만족도는 여학생의 생활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3.43, p<.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좀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또래애착에서는 여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좀더 또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탄력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표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 및 생활만족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신체상	남	386	40.54	8.01	6.88***
	여	545	37.23	6.62	
부애착	남	386	85.50	15.74	.53
	여	545	84.91	17.12	
모애착	남	386	88.20	14.92	-1.49
	여	545	89.79	17.00	
또래애착	남	386	86.00	12.74	-7.00***
	여	545	91.95	12.82	
탄력성	남	386	87.32	12.12	.80
	여	545	86.68	12.06	
생활만족	남	386	20.06	5.76	3.43**
	여	545	18.75	5.72	

** $p<.001$, * $p<.01$

2. 성별,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및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및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서 성별과 신체상을, 2단계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3단계에서 탄력성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과 신체상을 함께 투입한 것은 연구결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상의 경우 성차가 크므로 두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신체상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 각각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가 생활만족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부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과 모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신체상, 부애착, 또래애착 및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체상은 성별과 신체상이 투입된 1단계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46, p<.001$), 성별은 생활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았다. 이 결과는 <표 1>에서 나타난 남여의 생활만족도 차이가 성별의 독립적 영향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다른 관련 변인 즉 신체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임을 의미한다. 부와 또래애착이 투입된 모형($\beta=.35, P<.001$)과 탄력성이 투입된 모형($\beta=.27, p<.001$)에서 신체상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기는 하나,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상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변인이 투입되면서 신체상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점으로 볼 때, 신체상의 독립적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 또래와의 관계나 개인의 탄력적인 특성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부애착의 경우, 부애착과 또래애착이 투입된 모형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녔으며($\beta=.31, P<.001$), 탄력성이 투입된 모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지만($\beta=.26, p<.001$), 여전히 신체상이나 탄력성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은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으나($\beta=.06, p<.05$)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탄력성을 투입한 후에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부애착은 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투입되었다고 그 독립적 영향력이 유지되지만, 또래애착은 신체상이나 부애착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또한 탄력성이라는 개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변인이 투입된 마지막 모형에서 탄력성은 신체상 및 부애착과 함께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성별과 신체상만 투입되었을 때보다 부애착과 또래애착이 투입되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21%에서 31%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탄력성이 투입된 후에도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성별, 신체상, 부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모두 설명변수로 포함된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하여 35%의 설명력을 지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탄력적일수록 좀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체상과 부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한다.

<표 2> 성별, 신체상, 부애착, 또래애착 및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B	β	R ²	F
1단계	성별	.14	.01	.21	123.43***
	신체상	.36	.46***		
2단계	성별	.49	.04	.31	103.80***
	신체상	.28	.35***		
	부애착	.11	.31***		
	또래애착	.03	.06*		
3단계	성별	.44	.04	.35	100.80***
	신체상	.21	.27***		
	부애착	.09	.26***		
	또래애착	-.01	-.02		
	탄력성	.12	.26***		

*** p<.001, * p<.05

2) 성별, 신체상, 모애착, 또래애착 및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체상은 신체상과 성별이 투입된 1단계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강한 영향을 지녔으며($\beta=.46$, $p<.001$), 부와 또래애착이 투입된 모형($\beta=.37$, $P<.001$) 및 탄력성이 투입된 모형($\beta=.28$, $p<.001$)에서도 영향력이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부애착 모형과 동일하게, 신체상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성별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의 경우,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투입된 모형($\beta=.30$, $P<.001$)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탄력성이 투입된 모형($\beta=.22$, $p<.001$)에서 감소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그 영향이 유지되었다. 단, 탄력성이 투입되면서 부애착보다는 영향력이 좀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신체상과 탄력성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좀더 낮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또래애착은 부애착 회귀모형에서와는 달리,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투입된 모형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생활만족에 대해 비슷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지만, 모애착이 부애착보다는 또래애착과 좀더 관련되어 상대적인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변인이 투입된 마지막 모형에서 탄력성은 신체상 및 모애착과 함께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성별과 신체상만 투입되었을 때보다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투입되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21%에서 30%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탄력성이 투입된 후에 모형의 설명력이 다시 증가하였다. 성별, 신체상, 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모두 설명변수로 포함된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하여 34%의 설명력을 지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탄력적일수록 좀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애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애착 역시 신체상 및 탄력성과 함께,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한다.

<표 3> 성별, 신체상, 모애착,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B	β	R ²	F
1단계	성별	.14	.01	.21	123.42***
	신체상	.36	.46***		
2단계	성별	.67	.06	.30	97.93***
	신체상	.29	.37***		
	모애착	.10	.30***		
	또래애착	.02	.05		
3단계	성별	.58	.05	.34	97.22***
	신체상	.22	.28***		
	모애착	.08	.24***		
	또래애착	.01	.01		
	탄력성	.13	.27***		

*** p<.001

1), 2)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먼저 신체상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단일 변수로서 뿐만 아니라 변수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왜곡된 신체상이 그들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특히 좀더 낮은 신체상을 갖기 쉬운 여학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애착과 모애착 역시 청소년의 생활만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변수는 생활만족에 대해 비

슷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어느 한쪽이 아닌 부모 모두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외부로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큰 의미를 가지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또래애착의 경우 부애착 모형에서 탄력성 투입 후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모애착 모형에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또래관계가 생활만족과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다른 관련변수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애착 모형에서는 높은 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모애착 모형에서는 또래와의 관계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와 좀더 관련되기 때문에 모애착 변수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생활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탄력성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증명되었으며, 탄력성이 투입되면서 다른 변인들의 설명력이 감소함과 동시에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931명을 대상으로 신체상, 부모 애착 및 또래애착, 탄력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한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신체상과 또래에 대한 애착 및 생활만족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즉, 남학생의 신체상이 여학생의 신체상보다 긍정적이며, 남학생의 생활만족이 여학생의 생활만족보다 높다. 반면에 또래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신체상 지각이 남학생보다 낮다는 정복희(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여학생의 신체상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이시기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관심이 더 많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표준이나 표준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여학생들의 왜곡된 신체상은 무분별한 다이어트 성형수술 및 식이장애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적응 및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건강한 신체상

과 자아개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신체상에 대한 성차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남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학생의 또래애착은 남학생의 또래애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또래애착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지수경(2001)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또래애착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Greenberg, et al 및 김지연(199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에 성차가 나타난 것은 우정의 성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남학생은 친구를 폭넓게 사귀고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지만 여학생의 경우 친밀한 2인 관계형성을 더 선호하며 친구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 더 몰두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친구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주고받으며 전자 메일도 더 많이 주고받는다(조선일보 2004년 5월 20일자 기사). 이처럼 여학생은 친구와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행하고 이로 인해 남학생보다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최근에 '얼짱'이나 '몸짱' 신드롬이 생겨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체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고 주변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체상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활만족이 낮게 나타났지만 생활만족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볼 때 여학생의 낮은 생활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학생의 왜곡된 신체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경우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 수준이 적응의 지표로 사용되는 우울에 주효과를 준다는 고은정(1996)의 연구 및 역기능적 상황에 있는 아동들은 탄력성이 높은 경우 적응은 잘한다는 정현수(1993)의 연구,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과 가정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자은(2000)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 상황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대처전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잘 적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의 생활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청소년의 부애착과 모애착이 이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부모와 교사 및 친구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

록 학교생활적응도 높다는 문은식(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만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고 또래애착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외부로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큰 의미를 가지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또래애착의 경우 부애착 모형에서 탄력성 투입 후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모애착 모형에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와 친구의 애착을 비교한 선행연구(지수경, 2001)에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또래관계가 생활만족과 관련이 없다가보다는, 다른 관련변수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애착 모형에서는 높은 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시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을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지도 시에도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상과 탄력성 및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폭넓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추후 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만족과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외에 청소년의 생활만족과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탄력성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청소년의 주관적인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생활지도와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 접수일 : 2005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7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7일

【참 고 문 헌】

-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박미금(1999).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33-45.
- 김남숙(199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김 옥·이완정(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 애착. 가정관리학회지, 19, 31-40.
- 김윤희·황순택(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2), 343-362.
- 김은정(2003).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상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1(3), 349-369.
-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141- 15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이경남·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 이영미(2004a). 아동의 체형 지각 및 신체상 지각에 따른 절식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2(4), 143-153.
- 이영미(2004b). 아동의 체형 지각과 신체상 지각에 따른 부정적 정서. 대한가정학회지, 42(8), 133-145.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이용준(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대석사학위논문.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이춘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2.

- 장선철·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1(3), 115-133.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승교(1998). 여중생의 체형 지각에 따른 체중조절 실태,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 *세명논총*, 7(1), 619-632.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남·최외선(1999). 아동의 우울 정도에 따른 가족환경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91-100.
- 최영희·박영애·박인전·신민섭(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홍주영(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조선일보 2004년 5월 20일자 기사
-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 38.
- _____(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Obully/ 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Arn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Avenevoli, S., Sessa, F. M. & Steinberg, L.(1999). Family structure,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examinatio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65-9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 A.(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71-384.
- Benedek, R. S. & Benedek, E. P.(1979). Children of divorce: Can we meet their need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55-169.
- Block, J. & Ker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rn, M., Chevalier, V. & Humblet, I.(1997).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 679-694.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Y: Basic Books
- Brooks-Gumm, J.(1991). Consequences of maturational timing variations in adolescent girls.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2. New York : Garland.
- Di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s,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ke-Dunncan, P.(1991). Body images.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2. New York: Garland.
- Garnezy, N.(1996).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lopment. In Haggerty, R. J., Lonnie, R. S., Garnezy, N. & Rutter, M.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rocess, mechanism,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dek, L. A.(1981). An intergra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2, 131-182. Greenwich, CT: JAI.
- Luthar, S. S.(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 Schuman, N. E.(2000). Relational psychotherapy mother's group: A developmentally informed intervention for at-risk moth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35-253.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Kloh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0(5), 1067-1079.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2002).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Peterson, A. C., S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D.(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U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09.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Stress, support,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Wood, K. C., Becker, J. A. & Thompson, J. K.(1996). Body images dissatisfaction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5-100.